



어린이 도서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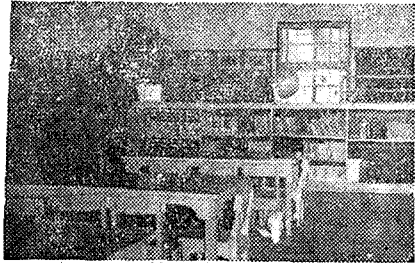
설치에 대한 나의 소견(所見)



一. 설치의 목적

종래는 도서관이라던 어른들만이 이용하는 규모가 큰것으로만 생각하여 오던것이 일반적 경향이었고 그리함으로써 장래의 일꾼이 될 아동들에 대하여서도 교실 안에서만 짜여진 학과에 대해서 주입식 교육을 해왔던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육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주입식 교육에서 일단 그 방향을 바꾸어 아동 스스로의 경험을 중시하는 아동 중심의 경험주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많은 노력 가운데 하나로, 종래 교과서에만 의존하여오던 주입식 교육과는 달리 어린이 들의 직접적인 경험에 관계되는 시청각 교육이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현대 교육의 장점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제교육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아동 도서관의 설치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은 종래의 서적을 공급하는 목적만을 가졌던 도서관과는 그 성격이 좀 다릅니다. 즉 내가 말하고자하는 아동도서관은 단순히 도서를 비치하는데만 그치지 않고 각종 동 식물 표본 각종 시청각자료 등을 준비하여 아동들의 흥미를 자극하므로 그들의 학습의욕을 돋우어 아동 스스로의 경험에 입각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있도록 인도하는 모든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곳이니 본교에서는 이 도

최 신 용



(梨大 附圖 도서관)

서실을 자료실이라하여 그 교육적인 범위와 가치가 종래의 도서실보다 훨씬 넓고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목적으로 세워진 도서실은 어떠한 설비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여야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나의 소견을 말해 보겠습니다.

二. 도서실의 시설

아동 도서실은 그 설치의 목적이 순학문적인 면에 치우친것 보담도 아동의 일상 생활에 卽 한 生活場으로서 아동의 흥미를 자극하여 자발적인 학습 활동을 하게하고 산 경험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는것이 그 주 목적이므로 이러한 면에 입각하여 그 시설도 단순히 책만을 진열하여 독서의 편의를 주는 데만 그치지 않고 도서실내의 시설의 규모를 확대시킴으로써 아동들의 도서실 이용에 대한 흥미를 돋구는 동시에 지식의 흡수를 효과적으로 하게 하기 위한 시설

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이와같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기에는 아직도 어려운 점이 많겠지요. 우선 기성 교실들을 이용하든지하여 열람 좌석을 만들고 의자가 부족하면 돗자리도 좋겠지요. 그리고 도서실의 사면 벽은 모두 계시판으로 사용하여 책소개, 시간소개, 새 소식, 도의생활을 위한 그림, 도서실내의 규칙, 아동들의 상상화, 외국어린이들의 그림, 작품, 과학그림등을 게시하여 두뇌 자극적이면 너무 복잡한 그림이나 도안을 피하는것이 좋고 언제나 명랑하고 재미있는 그림을 게시하여 아동들의 흥미를 자극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室內의 裝飾物로서는 서가를 비롯하여 학습자료, 진열장, 과학전시장, 잡지 열람대, 책걸이, 이야기 계시판, 카드 목록함 등을 비치해 두고 과학 전시장이나 학습자료 진열장등에 진열된 物件들은 학과에서 배우는 것과 연관성을 지어 각종 동 식물 표본, 광물의 표본 과학작품등을 진열하여 두고 이러한 것들은 물론 표본으로 만들어 진것을 사 놓는 것도 좋겠지만 학생들이 만든 작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시청각 자료로써 녹음기라든지 각종 Slid 등을 갖추어 아동들이 흥미를 가지고 도서실을 이용하게 하는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각 과녁)

三. 도서의 선택과 내용

아직도 사물을 판단하기 어렵고 사상이 채 굳지 못한 어린이들에게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어떠한 책들을 읽혀야 하겠는가 하는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앞으로 여러가지로 고려하여야 할 점들이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서실에 구비할 책들에 대해서도 그 종류나 내용등이 아동들에게 읽혀 유익한 것이라야함은 물론 판단력이 없고 모방적인 아동들의 심리에 좋지 않은 자극을 주는 책들은 금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도서의 선택에 대하여 다음의 몇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첫째 세계명작집

현재 우리나라에는 각국의 명작집을 번역한것들이 출판되고 있으나 이 책들의 번역에 있어서 잘되고 못된 차는 있더라도 아동들에게 번역이 좀 어렵지만 아동들에게 읽혀서 해(害)를 주지않고 오히려 작품중에 들어있는 좋은 말과 아동들에 양식이 될수있는 이(利)로운 내용이 실려있음으로써 꼭 갖추어두어야할 책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책들에는 세계명작집, 세계명작문고, 세계위인문고, 그 밖에도 신태양사에서 발간한 소년소녀문학선집 등이 있으나 현재까지 풍부한 숫자의 책이 발간 못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동화 소설집

순진한 아동들에게 흥미를 도꾸워주며 문학적인 소양을 길러주는데있어 좋은 책이며 신비한 세계로 이끌고 감정을 간직한 작품들인고로 아동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현재 동화와 소설이 많이 발간되고 있으나, 판단력이 부족하고 모방과 감정에서 우기기 쉬운 아동들에게 읽나옴과 명랑한 소양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도서의 선택

품 내용에 대해서 미리 참작해보고 비치해둘이 좋을줄 압니다.

셋째 위인전

현재 학원사 발행인 세계위인문고 50종과 우리나라의 위인전등을 들수 있으나 이 서적을 통해서 과거 인류에게 봉사한 위인이나 위대한 업적과 훌륭한 행동을 남긴 위인들의 생활과 어린 시절에 자라온 그들의 모습등을 도리켜 보므로써 아동들의 순결한 정신과 선량한 마음을 길러주며 인류에게 좋은봉사를 하겠다는 참 뜻을 북돋아 주는 의미에서 이러한 서적들의 비치가 중요하다고봅니다.

넷째 과학에 대한 서적

현재 아동문화사 아메비사에서 나오는 소년 소녀 세계과학 모험 전집 등이 있으나 그 종류로 보나 수효로 보나 어린이들에게 읽힐수있는 과학문고가 아주 빈약합니다. 과학이라면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고 딱딱한 선입감을 주기 쉬우나 우리가 과학에 세계를 떠나서는 살수없고 또한 지금 절실히 필요한것이 과학문명이라는 점에 비추어보아 어린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소양을 길러주며 흥미와 지식을 넣어주는데 있어 절실히 필요한 과학문헌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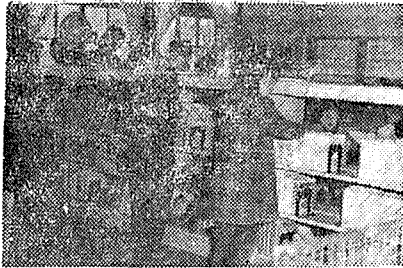
외국의 예를 들면 어려운 과학의 原理나 物理 化學等の 정리등도 흥미 있는 그림을그려 아동들이 보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들이 많으며 이러한 方法으로 어려서부터 과학에 대한 인식과 흥미를 부쳐 훌륭한 과학자나 좋은 발명가를 기르는데 뒷 받침하고 있다고 들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 발명에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하루속히 좋은 아동 과학문헌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교양과목

교양 과목에 대해서는 다른서적의 비중이 못지않게 비치하여 아동들이 서적을 통하여 얻는 교양의 지식이 적절 행동으로 나타나 자발적인 修身을하는 정서를 길러줌이 아동교육에 절실이 필요하다고봅니다. 또한 이밖에도 아동참고서 사전및 잡지류등을 들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린이들에게 귀로운 책들이 많다고 봅니다. 요즘 같이 과중한 학교 공부로 말미아마 손쉽게 보기 쉬운 책으로 만화책을 들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도 이 만화책을 즐기는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발



(도요인의 편의 대출)



(자유로운 열람)

간하고있는 만화책을 일률적으로 나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보통 서점에나 거리에서 파는 만화책은 이익보다 헐가 더 많으므로 아직까지 우리학교에서는 도서관에다 비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四. 도서실의 활용과 열람지도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고 좋은 책들을 많이 갖추어 주었다고 하더라도 도서관을 효과적으로 활용못하면 소용 없다고 생각 합니다.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은 성인들이 이용하는 도서관과는 달라 그 열람지도에도 특별한 방법을 써야 도서관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게 될것 믿으며 판단력이 부족한 아동들의 심리 상태를 잘 파악하여 효과적인 이용과 성과를 얻는데 있어서는 아직도 여러가지 연구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나 도서관을 맡은 사서교사의 장안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학급마다 일주일에 한번씩있는 이 자료실시간에 사서교사는 이시간을 통하여 도서관의 이용법 및 독서의 방법 서적의 선택 사전사용법등을 가르쳐 주므로써 아동들이 효과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게 합니다. 또 그 시간을 통하여 공동생활에서 지켜야할 예의 자기행동을 자제할

간에는 자유로 이용할수 있는동시에 사서교사와 자유롭게 어려운 문제나 모르는 문제등에 대해서도 물어본다든지 하고있습니다. 이 휴게시간에 조용히 책을 읽고있는 분위기를 방해하거나, 또는 빌려간 책을 늦게 반납하거나, 책에 낙서나 침질하는 어린이들에게는 그들의 기다리던 토요일 대출시에 책을 못빌리기로하고 있습니다.

五. 맺는말

오늘날의 어린이 교육이 어린이의 교재를 중심으로 행하여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어린이의 실질적인 지식 획득에 충분한 어떠한 시설이나, 자료가 제공되어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어린이 도서관의 설치문제가 어느 정도 보편화되고 현실화 될것지는 단독으로 말할수 없으나 오늘날의 교육이 어린이의 경험을 중심으로 행하여 진다고 보면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의 문제는 꼭 필요할뿐 아니라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보며 그 시설에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당면한 어린이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것은 가급적 마련하고 어린이들에게 산 지식을 얻게하는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할것입니다. 현재 아동들의 벗이되고 양식이 될만한 작품들이 부족한 실정에 비추어 본인은 만일 한국의 어린이들을 위한 좀 더 훌륭하고 보람있는 책들이 많이 나오기만 한다면 어린이들이 가진 싹을 자기 스스로 길러 충분한 소양과 좋은 열매를 맺을것을 확신하는바입니다.

필자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국민학교 사서교사)